

W_F_602

감투 쓴 설문대할망

2018년 11월 7일, 제주시 영평 하동 영평하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부경제(남, 1927년생, 제주시 영평 하동)

- 제주시 영평 하동에서 태어나 91년째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설문대할망은 어찌나 키가 컸는지 사라봉에 다리 한 쪽을 짚으면, 다른 쪽 다리는 한라산에 닿았다고 한다. 제주도 서쪽 한내 지경에 가면 크고 동그란 돌이 있는데, 설문대할망이 썼던 감튀라 한다. 감튀를 보면 설문대할망의 머리가 천하의 반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[조사자] 설문대할망 얘기 들어낫우과?

[제보자] 거 설문대할망이엔 말만 들었주. 저 시에 사라봉 한 가달 지치고 저 한라산에 한 가달 지치고 경혜낫젠 헤여. 하도 커낫인고라. 게난 감튀가 그렇게 크주게. 감튀가 뭐 동글락허게 대갈은 천하 반, 반착만 허게 들어가. 거 어머니가 젊은 때나 네 우리 둘이 돌아맞언 우리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돌아갓젠 허민. 나 어린 때난 둘양 뎅이난

“저건 무신 돌이우肯.”

허난

“저거 무신 설문대할망 감튀엔 헌다.”

경 굴아낫주, 한내주. 저 서이.

- 핵심어: 설문대할망, 사라봉, 한라산, 감튀(감투), 한내